

“NXT,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 자본시장 밸류업에 최선”

넥스트레이드 개장

김학수 대표 “첫 복수 거래시장 주문·거래체결 등 새로운 도전 테스트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시장의 새로운 100년 혁신 시작”

“시장의 요청에 맞춰 기민하고도 보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학수넥스트레이드(NXT)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센터)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NXT 개장식 환영사에서 “투자자에게 더 좋은 투자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결을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부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 이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NXT 시장 참여 증권사 대표 등 200여 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복수 거래 시장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하기에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

정성을 확인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XT 출범의 의미에 대해선 “복수 시장에서의 주문, 거래체결,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는 모두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오늘 NXT의 모습은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훌륭한 나무로 성장해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숲을 더 번창하게 이뤄갈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NXT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구상하고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는 원활한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도 통합 시장 관리자로서 복수 거래소 시장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오늘 출범하는 NXT 시장 역시 주식시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NXT 출범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밸류업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NXT 출범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공정거래 감시 체계 강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XT는 2022년 11월 설립 후 2023년 7월 예비인가, 지난 2월 본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이날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복수 주식거래 시장 시대를 열었다.

투자자는 별도의 앱에 접속할 필요 없이 참여 증권사 앱을 통해 수수료 등을 비교한 후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주문 전송시스템(SOR)이 적용되며, 증권사가 가격·비용·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배분하게 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급등락 코인시장… 관련 ETF 영향은 제한적

美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 발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급락

MSTY 1.59% ↓, 상대적 안정적 “환율 등 고려, 코인 ETF 신중해야”



홍콩 비트코인 ATM 옆에 전시돼있는 비트코인. /뉴시스

투자자들의 시선이 오는 7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의’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회의서 구체적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얼마나 비축할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0.19% 하락한 8만34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1만 달러 이상 급락한 셈이다. 이더리움은 필두로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컸다. 이더리움은 15.05% 하락한 20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을 발표하기 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루 만에 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동안, 관련 ETF들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해당 ETF들이 기업

리움의 10% 이상 하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코인 베이스 ETF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코인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것도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다”며 “결국 해외 ETF이기에 환율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코인 관련 ETF에 투자한다고 해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도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난 급등장 이후 급락했던 경험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7일 열리는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백악관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권사 디지털 전환에 연간 3583억 지출

금융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 절실

증권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는 MTS 등 신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개발비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358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전산 시스템 운영, 고객 정보 보호,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산 운용비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한 9677억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MTS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개발비로 176억원을 투자, 2023년(1억7851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전산 운용비로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77억원을 지출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개발비와 전산 운용비는 각각 전년 대비 28.5%, 12.1% 증

가한 190억원, 897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도 개발비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484억원을, 전산 운용비로 9.9% 늘어난 1055억원을 투자했다.

증권사들은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은 750곳으로 전년(816곳) 대비 약 8% 감소했다. 2019년 1026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27%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는 점포 수를 2023년 말 313곳에서 지난해 말 290곳으로 감축했다.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객들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계좌 개설 및 업무 처리를 하면서 지점 방문이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 외 지점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공모펀드 출시

삼성운용, 국내 첫 휴머노이드 테마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테마 펀드인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공모펀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피지컬AI의 대표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업 판매를 시작하자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투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해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펀드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로봇 관련 중국 기



업의 투자 비중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용한다. 이 펀드에는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으로 ▲유비테크 ▲로보센스 ▲샤오미 등이 담겨 있다. 물론, 또한 최근에 많이 하락한 미국 로봇 관련 기업들도 꾸준히 편입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서울보증보험,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국내외서 총 1509곳 기관투자자 참여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를 희망 범위 하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국내 1421곳, 해외 88곳 등 총 1509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신청주식 수량은 9억2465만주로, 이에 따른 최

종 경쟁률은 240.8대 1로 집계됐다.

확정공모가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총 공모금액은 약 1815억원이다. 의무보유 확약 건은 136건(참여주식수 기준 16.3%)이다. 6개월 및 3개월 장기 확약 건은 전체 확약 건 가운데 54%였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인

698만2160주를 매출하는 이번 서울보증보험의 공모는 구주매출 100%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상장 이후에도 경영효율화 및 시장친화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5~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 뒤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다.

/원관희 기자